

S-Oil, <올해의 시민영웅> 시상

S-Oil(대표 나세르 알 마하서)은 12월2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는 등 희생 정신을 발휘한 <시민영웅> 19명을 선정해 포상했다.



2012년 6월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하고 익사한 계룡공고 1학년 고 이재홍(16)군, 12월10일 야간근무 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숨진 광구 북부경찰서 소속 고 김재익 경사 등 2명의 의사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씩을 전달했다.

격투 끝에 성추행범을 붙잡은 야구해설가 이병훈씨, 불길 속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

우편집배원 전인호 씨 등 시민 17명에게도 상패와 함께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.

S-Oil은 2008년부터 매년 <올해의 시민영웅>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2/12/21>